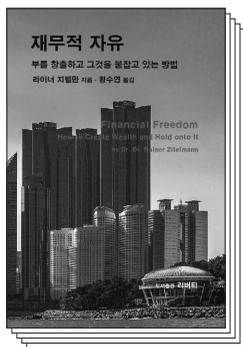


돈이 삶을 지배하지 않으려면



《재무적 자유》

—
 라이너 지텔만 지음
 황수연 옮김
 리버티 퍼냄

2017년 6월 테니스 전(前) 세계 랭킹 1위 보리스 베커가 영국 런던 고등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베커는 선수 시절 대회 상금으로만 25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은퇴 후 이런저런 사업에 도전했지만, 생각처럼 되지 않았고, 허위 납세 신고와 은행 대출금, 부동산, 주식 은닉 의혹 등을 받고 있었다. 결국 베커는 영국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짧은 감옥 생활을 마친 뒤 독일로 추방됐다. 돈에 삶을 저당 잡힌 셈이다.

이 책은 부(富)를 창출하는 방법과 이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저자 라이너 지텔만은 국내 언론에도 꾸준히 칼럼을 기고해온 자유주의 지식인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재무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일찍이 자본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는 사회주의 틀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반면 자본주의는 허점이 있지만, 열심히 일하면 개인과 사회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이기에 그 본성이 자본주의의 성격과 닮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책의 1부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저자는 백만장자들의 사례를 분석해 공통점을 도출해냈다. 부와 교육의 연관성도 다룬다. 2부에서는 어느 정도 모은 재산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여러 논문 자료와 단행본을 참고 문헌 삼아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다. 흥미로운 것은 연구서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돈과 행복, 돈과 정직 같은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순 없지만, 돈을 잘 다스리면 행복은 쫓아온다. ¹⁾ **朝鮮**

김세윤 기자